

사회교과서의 직업영역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화보를 중심으로

변효종[†] · 백미화 · 강희종
(영남대학교)

A study on sex-role reflected in the illustration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Hyo-Jong BYEON[†] · Mi-Hwa BAIK · Hee-Jong KANG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llustration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in order to find both sex-stereotypes and changing trends of sex-stereotypes last 60 years.

For the study, 56 textbook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of grades 3 to 6 are collected from the first to seventh national curriculum. The illustration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are analyzed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it analyzes the numbers of male and female appearances in the work place of the textbook illustrations. Second, it analyzes sex-stereotypes in the work place.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find changing trends of sex-stereotypes last 60 years in the illustration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make more female appearances in the illustrations in order to make female and male appearances balanced in the textbooks. Second, we need to make more female appearances in the work place, especially providing more female appearances in the illustrations of high-ranking jobs. Third, we need to present male and female characters more balanced in a variety of life situa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qual and just society to come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Sex-stereotypes, Social studies textbook, Illustration analysis

I. 서론

일반적으로 성역할(gender-role)이란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가치, 태도, 행동양식 및 인성 특성을 포함하는 문화기대에서 오는 일체의 행동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어린 시기에서부터 발달한다(정해숙

· 양애경 · 김홍숙, 1995). 특히 어린 시기에 형성된 성역할 의식은 성유형화 된 정보나 지식의 처리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친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교교육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교수학

[†] Corresponding author : 053-810-3121, bgeik@hammail.net

습 자료로 개발해 놓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특히 교과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학생의 교육경험의 폭과 질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학습능력에 맞게 재구성한 일차적인 학습자료로서 교육과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주된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를 통해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김재춘·변효종, 2008).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화보는 글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며, 학습내용에 대한 독자의 몰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Heinich et. al., 2002). 특히, 발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문자해독 능력이 부족하고 감각적 학습자료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책의 주요 내용을 화보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오영오, 1985; 윤혜원, 1990; Huck et al., 1993). 또한 이들은 중성적 사물이나 행위에 성과 관련된 단서가 붙어 있을 경우 그 단서를 토대로 성 역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정형화된 사유를 하는 경향이 있다(Martin, et. al., 1995). 이를 통해서 볼 때, 초등학교 교과서 화보에서의 올바른 성역할 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또한 교과서 화보 속의 출현 인물이 보여주는 성역할이 초등학생의 성역할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인물화보의 내용 구성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사회의 현상이나 생활을 주요 학습요소로 삼고 있는 사회교과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의 변화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 교과서의 화보 또한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명희, 1991, 김재춘, 1997).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화보를 통해 직업 장면에 나타난 성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우월주의가 강하여 여성은 가사와 육아의 전담자, 남성은 생산의 전담자라는 성역할 구도에 따른 가부장제적인 노동시장 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의식이 향상되면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평등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8%에서 2007년 50.5%로 7.5% 증가했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기간동안 76.4%에서 73.5%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On-line]).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동과 피부양 가족원(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의 주체에서 노동시장의 생산 주체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그에 따른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직업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임성빈·정해정, 2000), 그 중에서 일차적인 학습자료인 교과서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학교교육과 성역할 관련 연구에서도 직업세계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양적으로 증대되어왔으나 구조적 문화적 성차별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세화, 1977; 한명희, 1983; 김정자 외, 1985, 1986; 주경란, 1985; 민주교육추진 서울교사협의회 여성부, 1988; 김재인 외, 1993; 주은희, 1996; 조희숙, 1997; 정혜숙·정경아, 1998; 김

재춘·왕석순, 1999; 정해숙·김연, 2002; 오재림·정해숙, 2002; 최원혜, 2005; 김재춘·변효중, 2008 등).

초등학교 시절이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연구결과는 특정한 시점에서 아동들이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니게 될 성역할에 대한 이해체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교육과정)시기나 혹은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직업 활동에 대한 성역할 의식의 변화 정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회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성역할 의식 실태를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 분석해 봄으로써,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역할이 나타난 교과서의 화보를 시대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작업의 연구 결과는 향후 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사회교과서를 대상으로, 첫째,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직업적 상황을 묘사한 장면에서의 남녀의 출현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남녀 성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직업장면 화보에서의 남녀 출현비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직업활동 장면에서 남녀 성역할은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사회교과서 56권(1학기 28권, 2학기 28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1, 2학년 교과서를 제외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통합교육과정'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과가 별도의 과목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교과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교과서 수(권)	8권	8권	8권	8권	8권	8권	8권	56권

2. 분석 내용 및 분석 기준

가. 직업장면 화보에서의 성별 출현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화보에서의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비 및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직업군별 등장인물들의 출현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해숙 외(1998)의 연구에서 개발한 화보 분석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지에서 사용된 분석 항목은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 인원수, 화보의 유형, 등장인물의 직업군 및 직업명, 화보에서 남녀 역할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지 여부 등 다섯 가지이며 분석지를 제작하여 사용하

였으며, 각 항목별 분석 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자료의 성질 및 연구 목적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후 필요한 경우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때, 등장인물의 직업(생산)은 직업군을 입법·행정·관리, 전문직, 기술·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축산업, 기능노무직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직업군의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2007.7.2)에 의한 직종과 이에 따른 직무형태를 참고로 하였으며, 두 차례의 예비 분석과 협의 과정을 통해 7개 영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교과서 화보 분석은 성별 구분이 가능한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기준 설정과정에서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학부생(사회 전공), 교육학 박사 수료생, 초등 현장 교사 등 총 6명이 예비 분석(두 차례)과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교육학 박사 수료생 1명, 현지 초등교사 2명 등 총 4명이 두 명씩 조를 이루어 각각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대한 협의 및 재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를 결정하고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객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나. 직업장면에 나타난 성역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직업장면 화보에서의 남녀 성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김재춘·변효종(2008)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3개의 관점 즉, 여성의 회소성, 성역할의 고정성, 불균형성 중에서 본 연구의 성역할 분석에 유용한 2개의 기준, 즉 여성의 회소성, 성역할 고정성을 중심으로 특징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회소성이다. 여성의 회소성이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과서에서 현저히 회소하게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소성은 양적인 회소성과 질적인 회소성을 모두 포함한다. 교과서나 교수학습 자료에서 여성이 회소하게 드러나거나 주변적 존재로 다루어지는 것은 암암리에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덜 중요한 존재라든가 주변인이라는 왜곡된 가치를 심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 여성의 공헌을 평가절하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Sadker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직업장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수적으로 균형 있게 등장하는가,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비중 있는, 즉 주된 역할로 등장하는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교육과정기별로 교과서 화보의 등장인물들을 대상으로 주된 역할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성역할의 고정성이다. 성역할의 고정성이란 남성이나 여성에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특정한 역할과 태도를 부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교육 내용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능력, 관심 및 잠재력 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김재춘·왕석순, 1997; 최원혜, 2005; Sadker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화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를 교육과정기별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혹은 남성)의 참여가 적었던 직업 영역에 여성(남성)의 참여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여성을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는 인물로 다루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내용 및 분석 기준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과서 화보 분석 내용 및 기준

구분	분석 내용 및 관점(기준)	
성별 출현비	- 교육과정기별 직업장면 화보 수 및 성별 출현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기별 직업군별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성역할	여성의 희소성	- 직업장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등장하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하는가?
	성역할의 고정성	- 전통적으로 여성(혹은 남성)의 참여가 적었던 직업영역에서 여성(혹은 남성)의 참여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 여성들을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는 인물로 다루고 있는가?

<표 3> 직업장면에서 교육과정기별 남녀 성비 변화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남성	57 (69.5)	80 (82.5)	78 (69.6)	126 (72.4)	207 (68.1)	256 (71.1)	345 (62.3)	1,149 (68.3)
여성	25 (30.5)	17 (17.5)	34 (30.4)	48 (27.6)	97 (31.9)	104 (28.9)	209 (37.7)	534 (31.7)
계	82 (100)	97 (100)	112 (100)	174 (100)	304 (100)	360 (100)	554 (100)	1,683 (100)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1,683건이었으며 남녀 출현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1,149건으로 68.3%를, 여성은 534건으로 31.7%를 차지하였다. 교육과정기별 남녀 출현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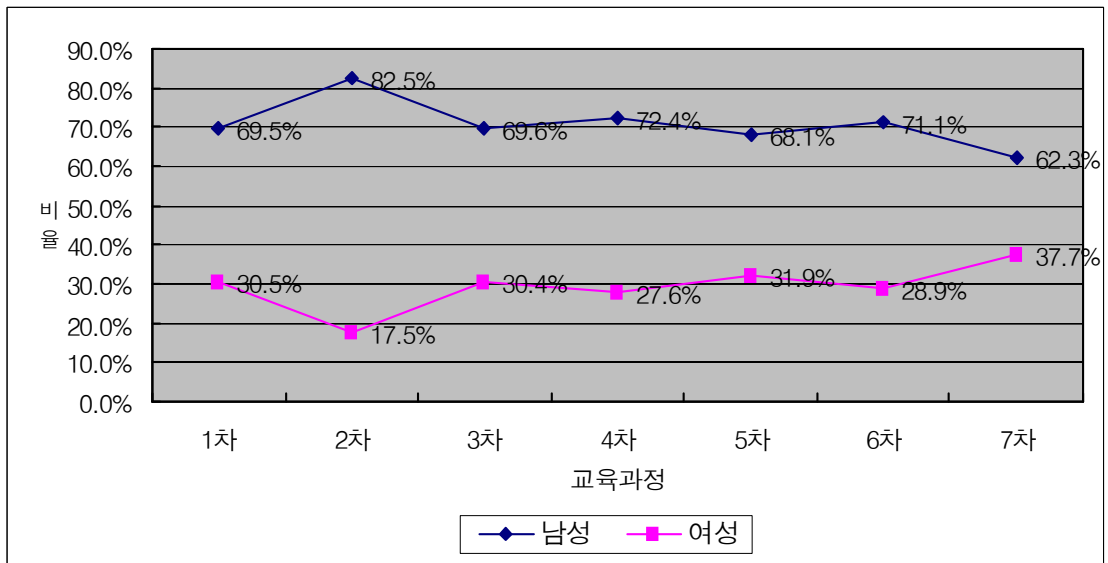
[그림 1]에 의하면, 모든 교육과정기에서 남성의 출현 비율은 여성보다 높았다. 제1차 교육과정기 이래로 제7차에 이르기까지 직업활동이 남성주도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차에서 양성간의 차이가 65%였던 것이 교육과정 개정이 거듭됨에 따라 남녀의 출현 비율

III. 분석 결과

1. 직업장면 화보에서의 성별 출현비

가. 직업장면 화보 수 및 성별 출현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 수와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출현비를 교육과정기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그림 1] 직업장면 화보에서 교육과정기별 남녀 성비 변화

의 차이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제7차에 이르러 양성간의 격차가 14.6%까지 좁혀지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직업 장면에 나타난 직업군별 성별 출현 비율을 교육과정시기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나. 직업군별 등장인물의 성별 출현비

<표 4>에서처럼, 남성이 전체 직업군에서 골고루 출현하는데 비해 여성은 단 한 차례도 출현하

<표 4> 교육과정기별 확보에 나타난 직업군별 성별 출현 비율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입법·정리·관리	남성	5 (100.0)	4 (100.0)	8 (57.1)	4 (100.0)	7 (100.0)	17 (94.4)	30 (61.2)	75 (74.3)
	여성	0 (0.0)	0 (0.0)	6 (42.9)	0 (0.0)	0 (0.0)	1 (5.6)	19 (38.8)	26 (25.7)
	계	5 (100.0)	4 (100.0)	14 (100.0)	4 (100.0)	7 (100.0)	18 (100.0)	49 (100.0)	101 (100.0)
전문직	남성	6 (37.5)	9 (90.0)	18 (78.3)	22 (66.7)	50 (62.5)	53 (57.6)	70 (58.8)	228 (61.1)
	여성	10 (62.5)	1 (10.0)	5 (21.7)	11 (33.3)	30 (37.5)	39 (42.4)	49 (41.2)	145 (38.9)
	계	16 (100.0)	10 (100.0)	23 (100.0)	33 (100.0)	80 (100.0)	92 (100.0)	119 (100.0)	373 (100.0)
기술·준전문직	남성	5 (100.0)	2 (66.7)	10 (90.9)	11 (78.6)	21 (87.5)	32 (94.1)	37 (69.8)	118 (81.9)
	여성	0 (0.0)	1 (33.3)	1 (9.1)	3 (21.4)	3 (12.5)	2 (5.9)	16 (30.2)	26 (18.1)
	계	5 (100.0)	3 (100.0)	11 (100.0)	14 (100.0)	24 (100.0)	34 (100.0)	53 (100.0)	144 (100.0)
사무직	남성	6 (75.0)	9 (69.2)	9 (60.0)	11 (64.7)	39 (67.2)	39 (70.9)	68 (59.6)	181 (64.6)
	여성	2 (25.0)	4 (30.8)	6 (40.0)	6 (35.3)	19 (32.8)	16 (29.1)	46 (40.4)	99 (35.4)
	계	8 (100.0)	13 (100.0)	15 (100.0)	17 (100.0)	58 (100.0)	55 (100.0)	114 (100.0)	280 (100.0)
서비스·판매	남성	8 (100.0)	8 (80.0)	7 (53.8)	13 (61.9)	24 (55.8)	40 (64.5)	34 (45.9)	134 (58.0)
	여성	0 (0.0)	2 (20.0)	6 (46.2)	8 (38.1)	19 (44.2)	22 (35.5)	40 (54.1)	97 (42.0)
	계	8 (100.0)	10 (100.0)	13 (100.0)	21 (100.0)	43 (100.0)	62 (100.0)	74 (100.0)	231 (100.0)
농림어업·축산업	남성	19 (70.4)	33 (84.6)	17 (81.0)	35 (83.3)	37 (75.5)	47 (81.3)	70 (75.3)	258 (78.4)
	여성	8 (29.6)	6 (15.4)	4 (19.0)	7 (16.7)	12 (24.5)	11 (18.7)	23 (24.7)	71 (21.6)
	계	27 (100.0)	39 (100.0)	21 (100.0)	42 (100.0)	49 (100.0)	58 (100.0)	93 (100.0)	329 (100.0)
기능·노무직	남성	8 (61.5)	15 (83.3)	9 (60.0)	30 (69.8)	29 (67.4)	28 (68.3)	36 (69.2)	155 (68.9)
	여성	5 (28.5)	3 (16.7)	6 (40.0)	13 (30.2)	14 (22.6)	13 (31.7)	16 (30.8)	70 (31.1)
	계	13 (100.0)	18 (100.0)	15 (100.0)	43 (100.0)	43 (100.0)	41 (100.0)	52 (100.0)	225 (100.0)
계	남성	57 (69.5)	80 (82.5)	78 (69.6)	126 (72.4)	207 (68.1)	256 (71.1)	345 (62.3)	1,149 (68.3)
	여성	25 (30.5)	17 (17.5)	34 (30.4)	48 (27.6)	97 (31.9)	104 (28.9)	209 (37.7)	534 (31.7)
	계	82 (100.0)	97 (100.0)	112 (100.0)	174 (100.0)	304 (100.0)	360 (100.0)	554 (100.0)	1,683 (100.0)

지 않거나 출현비율이 남성에 비해 극히 낮은 직업군이 많았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제1차, 제2차 및 제4차, 제5차 교육과정기에서 입법·행정·관리직, 제1차 교육과정기의 기술·준전문직, 제1차 교육과정기의 서비스·판매직에서 단 한 차례도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사무직, 제2차 교육과정기에서 전문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축산업,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 전문직, 기술·준전문직, 농림·어업·축산업, 제4차 및 제5차 교육과정기에서 기술·준전문직, 농림·어업·축산업,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 입법행정관리직, 기술·준전문직, 농림·어업·축산업,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 농림·어업·축산업에서는 양성간의 출현비 차이가 50% 이상이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이 출현하고 있다.

한편,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남성은 사업가, 정치인, 학자, 의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약사, 언론인, 정보기사, 예술인, 연예인, 항공기 조종사, 종교인, 전문기술인, 운동선수, 요리사, 운전수,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소방관, 경찰관, 상업,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판매직, 공원, 우체부,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총 32개 이상의 직업장면에서 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정치인, 사업가, 학자, 의사, 판·검사, 약사, 언론인, 간호사, 예술인, 종교인, 기술직, 운동선수,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경찰관, 상업, 기타 서비스직,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공원, 단순노무직 등 총 24개 직업 장면에서 출현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 거듭됨에 따라 이전의 시기보다 더 다양한 직업군에서 여성이 출현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직업군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출현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업군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제1차 교육과정기의 전문직(62.5%), 제3차의 입법·행정·관리직(42.9%), 사무직(40.0%), 서비스·판매직(46.2%), 기능노무직(40.0%), 제5차의 서비스·판

매직(44.2%), 제6차의 전문직(42.4%), 제7차의 전문직(41.2%), 사무직(40.4%), 서비스·판매직(54.1%) 등의 직업군에서 여성의 출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 분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의 직업관이 지배적이라는 사실과, 성별, 직종 및 직업분리현상이 잔재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교육과정기별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각 직업군별 남녀 성별 출현비 변화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행정·관리직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101건이었으며, 남녀의 출현비는 남성이 75건으로 74.3%, 여성이 26건으로 25.7%였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남성만 출현하고 여성의 출현이 없다가 제3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여성이 출현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4차 이후 제5차에 이르기까지 다시 남성만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6차이후로 다시 여성이 출현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22.4%까지 좁혀졌다. 모든 시기에서 남성위주의 분포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직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373건이었으며, 남녀의 출현비는 남성이 228건으로 62.5%, 여성이 145건으로 37.5%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여성의 출현비는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제2차 이후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성별간 출현비 차이를 살펴보면, 제2차에서 80%였던 것이 제6차 이후로 2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셋째, 기술·준전문직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144건이었으며, 남녀의 출현비는 남성이 118건으로 81.9%, 여성이 26건으로 18.1%였다. 제1차에서는 여성이 출현한 경우가 한 건도 제2차부터 여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모든 시기에서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성별간 출현비 차이

를 살펴보면, 제1차에서 100.0%였던 것이 제7차에는 15.7%로 양성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넷째, 사무직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280건이었으며, 남녀 출현비는 남성이 181건으로 64.6%, 여성이 99건으로 35.4%였다.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모든 시기에서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성별간 출현비를 살펴보면,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양성간의 출현비 차이가 50.0%에서 20.0%줄어들다가 이후 제4차부터 6차까지는 다시 29.4%로 늘었다가 제7차에서 다시 13.2%까지 줄어들었다.

다섯째, 서비스·판매직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231건이었으며, 남녀 출현비는 남성이 134건으로 58.0%, 여성이 97건으로 42.0%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여성이 출현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가 제2차 이후로 여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3차에서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적게는 17.0%에서 많게는 29.0%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가 제7차 때에는 여성의 출현 비율이 남성보다 8.2%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섯째, 농림·어업·축산업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329건이었으며, 남녀 출현비는 남성이 258건으로 78.4%, 여성이 71건으로 21.6%였다.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모든 시기에서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일곱째, 기능·노무직 관련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는 총 225건이었으며, 남녀출현비는 남성이 155건으로 68.9%, 여성이 70건으로 31.1%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양성간의 출현비 차이가 33%였던 것이 제2차에서 67.4%로 차이가 훨씬 늘어난다. 그러다가 제3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는 차이가 20%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모든 시기에서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최대 45.2%까지 더 높았다.

2. 직업장면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제1차에서 제7차까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총 13개의 화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화보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남성의 모습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기를 지나면서 [그림 2]~[그림 5]에서처럼 여성의 직업 활동을 묘사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묘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
(2차 5-1 18쪽)



여러 가지 직업
(3차 4-1 22쪽)



여러 가지 직업
(3차 6-1 114쪽)

[그림 2] 제2차 및 제3차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여러 가지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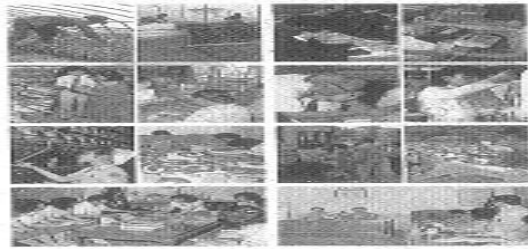
사회교과서의 직업영역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화보를 중심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일터
(3-1 92쪽)



촌락과 도시사람들이 하는 일
(3-1 96쪽)



여러 가지 직업
(4-2 151쪽)



우리가 자라서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2 110쪽)

[그림 3] 제5차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가지 직업
(99쪽)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은 어떤 것일까?
(101쪽)



봉사하며 보람을 느끼는 직업
(101쪽)

[그림 4] 제6차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여러 가지 직업(5학년 1학기)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3-1 58쪽)



여러 가지 직업
(4-1 71쪽)



자유로운 직업활동
(5-2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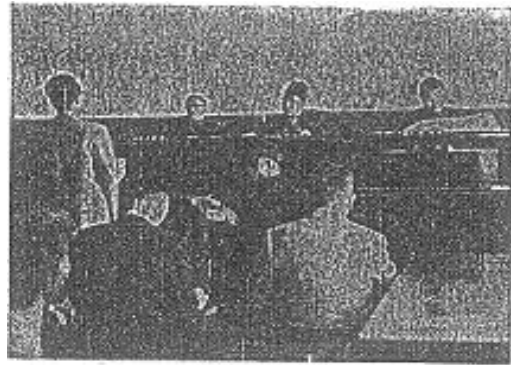
[그림 5] 제7차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여러 가지 직업

위에 제시한 [그림 2]~[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 제2차 및 제3차에서는 남성이 등

장하거나 남성과 관련한 직업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제5차 이후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과 관련한 직업에 대한 소개가 증가



지방 의회 모임



재판하는 광경



재판을 받는 모습
(4차 6-1 46쪽)



의회 의원분들은 교장의 살림살이가 바르게 이루어 지는가 살핍니다
지방 의회 활동 모습
(6차 3-2 90쪽)

[그림 6] 입법·행정·관리직 직업 활동의 사례



연구하는 모습
(1차 3-1 86쪽)



의사의 진료
(4차 5-1 65쪽)



의사의 진료
(7차 3-1 57쪽)

[그림 7] 전문직 직업 활동의 사례

하고 있다. 그러나 소개되고 있는 직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무원, 경찰관, 소방관, 판사, 전문기술자로 여성의 경우, 간호사, 상점의 점원, 교사, 공원, 미용사, 예술가 등으로 성별로 직종이나 직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직업군별로 직업장면을 묘사한 화보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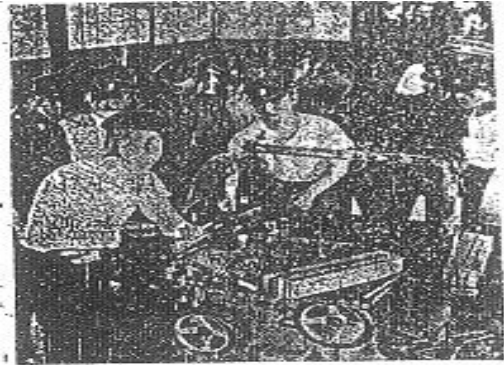
첫째, 입법·행정·관리직 및 전문직과 관련된 화보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그림 6]과 [그림 7]에서처럼, 여성이 배제된 채 남성만 출현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의회 활동 장면을 묘사하거나 재판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그림 6])에서 여성이 출현하는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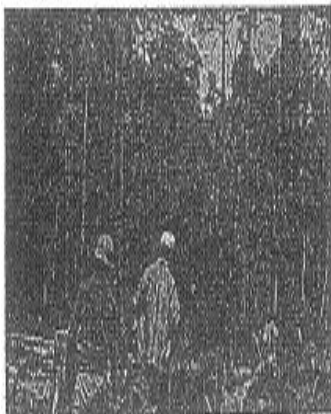
둘째, 기술·준전문직과 관련한 직업장면 화보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그림 8]에서처럼, 남성의 역할을 더 비중있게 다루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직업을 구하고 유능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장면([그림 8]의 위)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



기술익히기
(2차 3-1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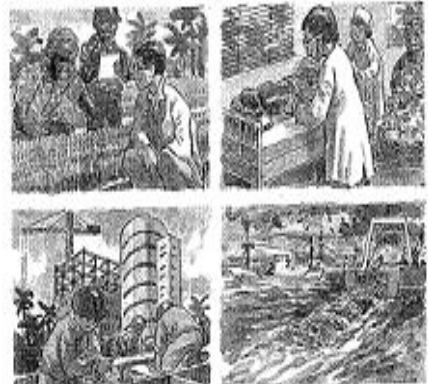
(강차 유능한 일군이 되기 위해서 기술을 닦고있는 학생들)
기술익히기
(2차 6-2 120쪽)



(인도네시아 산림 자원을 개발하는 우리 기술자)
외국에 진출한 기술자
(3차 5-1 100쪽)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
국제기능올림픽
(4차 5-1 70쪽)



(뛰어난 우리 기술: 우리 기술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여
우수한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진출한 우리 기술자
(5차 5-1 129쪽)

[그림 8] 기술·준전문직 직업 활동의 사례

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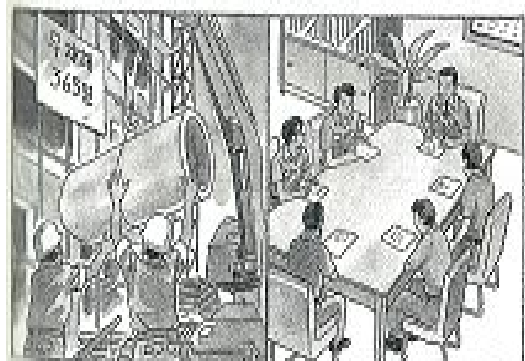
그러나 구체적인 직업활동 장면에서는 남성의 역할을 더 비중 있게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 기능올림픽에 참가해 국위를 선양하는 모습 ([그림 8]의 아래쪽 가장 왼쪽), 외국에 진출하여 뛰어난 우리의 기술을 전파하는 장면([그림 8]의

가운데 및 오른쪽)을 묘사함으로써 남성의 역할을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셋째, 사무직과 관련한 화보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그림 9]에서처럼, 남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나라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



(공무원 교육: 공무원은 나라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
(5차 5-1 23쪽)



서로 협력하는 직장인 모습
(5차 5-1 23쪽)

[그림 9] 사무직 직업 활동의 사례



들에서 나는 것
(2차 3-1 44쪽)



농협 협동조합
(3차 3-2 74쪽)



(누에치기를 하여 성공한 우리 교포: 브라질에서 잠업, 농업에 종사하여 성공한 교포가 많다)

외국에서 성공한 교포
(5차 6-2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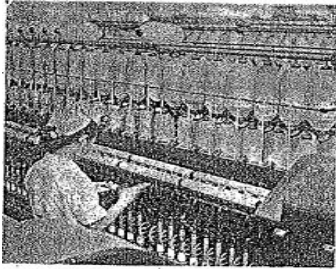
신제품 개발
(6차 3-1 71쪽)

[그림 10] 농림·어업·축산업 직업 활동의 사례

는 모습([그림 9] 왼쪽)이나 다른 직업과 협동하는 모습([그림 9] 오른쪽)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넷째, 농림·어업·축산업과 관련한 화보에서

의 중요한 특징은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장면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역할이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1차에서 제3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산이나 들, 바다, 그리고 농장 등 생산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장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2차 5-1 76쪽)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3차 3-1 18쪽)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4차 5-1 25쪽)



남녀가 함께 일하는 공장
(4차 5-2 18쪽)



(연구활동:공장에서는 생산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연구를 하며, 여러 사람이 모여 토의도 한다)

생산품질을 높이기 위한 토의 장면
(5차 5-1 91쪽)



고장에 있는 여러 공장
(6차 3-1 67쪽)



컴퓨터 생산 활동
(7차 4-1 68쪽)

[그림 11] 기능·노무직 직업 활동의 사례

에서 남성의 모습만 묘사되고 있다. 제5차 및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외국에서 누에치기를 하여 성공한 남성([그림10] 아래쪽 좌측)을,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그림 10] 아래쪽 우측)을 제시함으로써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농촌지도소에서 마을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농사기술을 가르치는 장면이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 등 남성을 중심으로 화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기능·노무직과 관련한 화보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그림 11]에서처럼, 출현빈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중요한 역할은 남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공장에서 직업 활동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주로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그림 11] 가운데 좌측)이 등장한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여성들이 생산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 남녀가 서로 토론하는 모습([그림 11] 가운데 우측)을 묘사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생산활동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직업활동이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남성의 모습만 묘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 대부분의 직업활동 장면에서 남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비중있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인식되어 온 영역이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여성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점, 고위직이나 법, 정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등은 직업활동이 주로 남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며, 특정한 직업영역을 중심으로 직업분리 현상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분석 결과 요약 및 의미

내용	결과요약(특징)	의미	판단의 근거
성별 출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출현비 간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여성의 경우 특정한 몇 개의 직업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의 출현 비율이 여성보다 더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소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현비의 간격을 더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고정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남성우월적 직업관념)이 남아있으며, 아이들에게 그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될 여지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이나 삽화에서 남성이 더 자주 출현한다는 것은 여성이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덜 중요하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참여와 공헌에 대해서 제한된 식견을 갖게 할 수 있다(최원혜, 2005). · 문자해독 능력이 부족하고 감각적 학습 자료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어린 아동일수록 책의 주요 내용을 화보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오영오, 1985; 윤혜원, 1990; Huck et al., 1993; Simons & Elster, 1985, 1990).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남성의 모습만 묘사한 경우가 많음 · 주로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됨 · 직업군에 따라 직업분리현상이 나타남(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온 영역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여성이 배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성 정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남녀를 고루 출현시킴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차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일종의 여성억압의 형태로 작용하여 남녀의 차이를 합리화 시켜 결국 성적 불평등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최원혜, 2005)

IV. 논의 및 결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화보는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우월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였으며, 직업 유형별로는 성별에 따른 직업분리 현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덜 가치롭거나 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과 함께 향후 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이 거듭됨에 따라 사회교과서 화보에서 여성의 출현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남녀 출현 비율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의 화보에서 성별 화보의 출현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화보에서 양성 모두가 출현하는 화보가 남성이나 여성만 등장하는 화보보다 더 많았다. 대부분의 직업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현 비율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으며, 특히 서비스 판매직종에서는 여성의 출현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직업별 취업자 변화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통계청 [On-line])와 유사점을 보인다. 현황에 따르면 몇몇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무직종에 근무하는 취업자의 비율조사에서 2000년 이후 벌써 여성(51.2%)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4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 현재는 여성 52.1%, 남성 47.9%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서비스, 판매직에서는 2000년 이후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에도 2007년 현재 여성 46.1%, 남성 53.9%로 10년 전인 2000년 여성 43.9%, 남성

56.1%보다 격차가 더 좁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소성 측면에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회교과서 화보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자주 등장한다는 점, 여성 화보보다는 남성 화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점, 특히,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성별 화보 분석 결과에서 직업활동과 관련한 화보에서 모든 교육과정기에서 남성의 출현비가 여성의 출현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거나, 내용상 비중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주로 남성이라는 점은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삽화에서 남성이 더 자주 출현한다는 것은 여성이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덜 중요하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참여와 공헌에 대해서 제한된 식견을 갖게 할 수 있다(최원혜, 2005).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직업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비율로 종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양성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과서에 제시된 화보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현비율 특히 특정 직업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출현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그것이 어린 아동들에게 직업에 대한 편향성과 왜곡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삽화가 나이가 어린 아동의 주의를 강하게 빼앗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학습에서 중요한 탈맥락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특히 문자해독 능력이 부족하고 감각적 학습자료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어린 아동

일수록 책의 주요 내용을 화보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오영오, 1985; 윤혜원, 1990; Huck et al., 1993; Simons & Elster, 1985, 1990)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화보가 아동들에게 직업과 관련한 성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실제 생활 장면을 접하고 체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어린 시기에 교과서를 통해 본 경험이 그대로 아동의 고정관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화보에 제시된 대부분의 직업장면에서 남성의 역할을 여성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는 등 여성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남성 우월주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성은 고소득, 고지위, 전문적인 직업 영역에서의 활동장면을 자주 제시하고, 자신의 직업영역에서 연구 개발에 관심을 지니고, 외국에 진출하여 뛰어난 기술을 전파하며, 자기개발을 통해 성장 발전하는 모습 등 보다 발전적인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저소득, 저지위, 단순 기능직 직업 영역에서의 활동장면을 자주 제시하며,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배우고 익히거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에 자주 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덜 중요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일종의 여성억압의 형태로 작용하여 남녀의 차이를 합리화 시켜 결국 성적 불평등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최원혜, 2005) 교과서 화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화보를 지속적으로 제시 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직업활동을 묘사한 장면에서 남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편파적이고 성정형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볼 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현저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과서 화보에 제시된 직업장면 화보에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직업의 분리 현상이 남아있었다. 즉 직업의 종류에 따라 성별로 출현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교사를 제외하고는 전문직 보다는 판매원, 도우미, 단순사무직 등의 직업군에서 더 많이 출현하는 데 반하여 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 예컨대, 공무원, 의정활동,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화보 등에서 더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분리 현상은 교육과정기별로 각 직종의 성비를 비교한 결과에서 특정한 직업 장면에서 특정한 성이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남성 혹은 여성만 등장하는 장면은 총 706건이었고 그 중 남성만 등장하는 경우가 511건으로 72.5%, 여성만 등장하는 경우가 195건으로 27.5%를 각각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마다 시기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인, 농림·어업·수산업, 전문기술직, 운전직,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 영역에서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공원, 서비스직에서는 여자의 활동 장면만 묘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직업분리 현상은 통계청에서 밝힌 「경제활동인구연보」의 2000년-2007년 직업별 취업자 현황과 유사성을 띠는 것이다(통계청 [On-line]).

자료에 의하면, 의회의원이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현재 8.8%인데 비해 남성은 91.2%로 남성이 훨씬 많았으며, 이외에도 기술및준전문직의 경우 여성이 35.0%, 남성이 64.9%, 단순기능직의 경우

여성이 13.2%, 남성이 86.8%로 남성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9.4%에 불과한데 비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6%로 여성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업별 취업자 분포현황이 특정 직업을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원인 규명을 위한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직업에 대한 진출이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종에서 여성의 직업참여율과 남성의 참여율 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현실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 현상이 잔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과서에서 남성 혹은 여성 즉 특정한 성이 배제된 직업장면들의 제시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고정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특정 직업은 남자만이 혹은 여자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직업관을 가질 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남녀를 고루 출현시킴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차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교과서 화보에서 특히 사회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 활동 영역에 여성을 더 많이 포함시킨다면 여성의 역할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남녀평등에 대한 제도적, 법적 제도 장치가 아무리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고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의 것들을 분석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유기적으로 성차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교과서와 같은 중요한 학습교재의 직업적 장면에 성차별적 요소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정자·박선희·이영세·강선혜(2004).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5 연구보고 200-4.
- 김정자·박선희·이영세·강선혜(1986).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6 연구보고서 200-2.
- 김재인·정해숙·양애경(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춘·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99-1.
- 김재춘·변효종(2008).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교육과정연구, 26(4), 21~46.
- 민주교육추진 서울교사협회의회 여성부(1988). 성차별 극복을 위한 자료집 I.
- 박소영·김대현(2008).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통합 편성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수해양교육연구, 20(2), 168~183.
- 박종운·김진구(200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 탐구영역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 문항 분석, 수해양교육연구, 16(2), 50~59.
- 오영오(1985). 초등학교 교과서 Illustration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오재림·정해숙(2002).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여성교육정책연구과제, 2002-2.
- 윤혜원(1990).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정빈·정혜정(2000). 성역할과 여성:여성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정세화(1977).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신세호(편), 한국인의 남녀역할관,

한국교육개발원, 181~190.

정해숙 · 양애경 · 김홍숙(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 · 학습과정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95 연구보고서 200-1.

정해숙 · 정경아(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 유희정 · 이홍림 · 이순열(1998).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 의식 고취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해숙 · 김연(2002). 초 · 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조희숙(1997).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화보에 나타난 성역할의 분석: 해방 이후에서 현재까지, 유아교육논총, 7, 163~185.

주경란(1985). 교육기회의 남녀불평등, 교육학연구, 23(2), 17~34.

주은희(1996). 한국교육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 서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원혜(2005). 양성평등교육관점에서 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내용분석, 교육연구논총, 26(1), 241~263.

최혜숙(1985). 초등학교 바른생활 삽화의 성역할 분포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유아연구, 제3집, 175~185.

한명희(1983). 초등학교 어린이의 성역할 의식과 교육의 과제, 동국대논문집, 제22집, 동국대학교.

한명희(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홍선희 · 황숙희(1995). 초등학교 바른생활 1학년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별 역할 묘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유아연구, 제12집, 98~107.

Heinich, R., Molenda, M., Russel, J. D., &

Smaldino, S. E.(2002). "Instructional media and technologies for learning (7th ed.)", NY: Prentice Hall, Inc.

Huck, C. S., Heplers, S., & Hickman, J.(1993). "Children's literature in the elementary school(5th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Linen, L. S., & Signorella, M. L.(1993). Gender-schematic processing in children: "The role of initial interpretations of stimuli."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41~149.

Martin, C. L., Eisenbud, L., & Rose, H.(1995). "Children's gender based reasoning about toys." *Child Development*, 66, 1453~1471.

Sadker, D. & Sadker, M. & Long, L.(1997). Gender and educational equality, In J.A. Banks & C.A. Banks(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Needham Heights, MA: A Viacom Company.

Simons, H. D., & Elster, C.(1985). The function of illustrations in beginning reading text, In J. Niles & A. Lalik(Eds), "Issues in literacy: A research perspective." *Thirty-fourth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320~323.

Simons, H. D., & Elster, C.(1990). "Picture dependence in first-grade basal texts."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84(2), 86~92.

Weitzman, L. J., Eitler, E.(1972). Hokada, & Ross, "Sex-Role socialization in picture books for pre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1125~1150.

-
- 논문접수일 : 2009년 08월 2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09년 10월 07일
2차 - 2009년 10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30일